

문화산책

강혜경

문학박사·문화기획자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현실이 된다면, 문화예술의 생태 지도는 어떻게 달라질까. 통합은 단순히 행정 구역을 합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도시가 움직이는 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행정 체계가 달라지면 예산의 흐름이 재편되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조정된다. 시민의 생활 동선도 새로 그려진다. 문화는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가장 빠르게 번역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통합 논의는 곧 문화의 질문이기도 하다.

광주에는 뚜렷한 문화적 축적이 있다. 금남로와 구도심은 시민의 기억이 응축된 공간이다. 5·18의 시간과 시민 축제의 장면이 커져이 쌓여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이 기억은 단지 과거의 서사가 아니라 오늘의 문화적 에너지로 작동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개관 이후 누적 방문객 2천만 명을 넘기며 창·제작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공연과 전시, 미디어 콘텐츠가 이곳에서 생산되고 축적되며 지역을 넘어 확장되어 왔다. 나주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행정과 생활 기반을 갖추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 나주로 이전에 지역 문화와의 접점을 넓혀왔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존재하는 힘이다.

그러나 이 자신들은 아직 ‘점’으로 존재한다. 금남로는 금남로대로, ACC는 ACC대로, 나주는 나주대로 움직인

기고

강경문

전남도 고향사랑과장



순망치한(舜亡齒寒)이라는 말이 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다’는 뜻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쪽이 없어지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지금 대한민국 지방소멸의 위기가 이와 같을 것이다.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일극 체제 고착화 등으로 지방정부의 기반이 흔들리면,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과 지역 간 인구 유입 경쟁은 ‘제로섬’게임일 것이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 지역과 지역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또한 지속적인 관계 맺기를 형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무엇일까? 우리가 찾은 답은, 바로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이다.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는 단순한 회원이 아닌, 지역

어떻게 달라질까?

다. 서로를 유기적으로 잇는 운영 구조는 충분히 단단하지 않다. 콘텐츠는 제작되지만 다른 공간으로 순환하지 못하고, 지원은 이루어지지만 광역 단위의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축적은 있지만 연결은 약하다. 문화는 존재하지만 생태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통합의 의미를 묻는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더 많은 기관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산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다. 나는 이를 ‘광역 문화축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다. 구도심-ACC-황룡강-나주 혁신도시를 하나의 시즌과 하나의 동선, 하나의 운영 체계로 묶는 구상이다.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열하는 일이다. 흩어진 점을 선으로 잇고, 그 선을 하나의 축으로 세우는 일이다.

황룡강은 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황룡강은 지리적 경계이면서 생활권과 산업권이 교차하는 공간이다. 송정역과 산업단지, 나주로 이어지는 축 위에 놓여 있다. 그동안은 주변부로 인식되었지만,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중심을 잇는 위치에 있다. 나는 황룡강을 상징 조형물의 공간으로 보지 않는다. 이곳은 중심을 대체하는 곳이 아니라 중심을 확장하는 문화적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만나고 머물고 다시 이동하는 연결의 노드다. 노드는 거창하지 않다. 그러나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전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광역 시즌제 운영이다. ACC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구도심에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확장되고, 황룡강 권역에서 체류형·야외형 콘텐츠로 전환되며, 나주에서는 레저단시와 포럼, 자원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

동심동덕의 힘, 전남사랑에 서포터즈 65만 돌파

과 관계를 맺고, 응원하고, 소비하는 지역발전에 원동력을 불어넣는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관계인구’이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 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당장 전남으로 이주해서 살지 않더라도, 지역에 호감을 가지고 방문하여 특산품을 구입하거나 지역에 기부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9월부터 시작, 2028년까지 100만 명 모집을 목표로 한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 가입자가 올 2월 초 65만 명을 돌파했다.

정책 시행 3년 5개월여 만에 65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전국 각지 1300만 명의 호남향우들과 우리 전남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 전남도와 시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동심동덕(同心同德, 같은 목표를 위해 다 같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의 마음으로 펼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는 전남의 12번째 선수가 자 홍보대사이다.

전남 관광 매력을 알리고 전남의 농수축산물을 구매·홍보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계하는 것이다. 하나의 콘텐츠가 공간을 옮기며 다른 얼굴로 살아 움직이게 해야 한다. 문화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되는 흐름이 되어야 한다.

둘째, 이동과 체류의 설계다. 문화 전략은 교통 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주말·야간 순환 동선, 광역 환승 연계, 통합 관광 패스 같은 실질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시민은 자연스럽게 이동한다. 이동이 불편하면 문화는 확산되지 않는다. 체류 시간이 늘어나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도 함께 살아난다. 통합은 행정 통합이 아니라 생활 동선의 통합이어야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출발한다.

셋째, 거버넌스의 재구성이다. 지자체와 ACC, 예술위, 민간 제작사, 관광·MICE 분야가 함께 시즌을 기획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상설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 문화는 단일 기관의 힘으로 지속될 수 없다. 평가 지표 또한 행사 횟수 중심에서 벗어나 체류 시간, 지역 창작자 참여율, 콘텐츠의 재유통, 민간 투자 연계와 같은 구조적 지표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축은 유지된다.

필자는 통합을 ‘규모의 확대’라기보다 ‘질서의 재배치’로 본다. 금남로는 기억의 중심으로, ACC는 제작의 중심으로, 나주는 자원과 확산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황룡강은 이 흐름을 연결하는 축으로 작동할 때 통합은 시민의 경험 속에서 실체를 갖는다. 통합의 성패는 청사의 위치가 아니라 연결의 완성도에 달려 있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생활권, 하나의 문화권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점을 늘리는 일이 아니다. 선을 만들고, 그 선을 이어 축을 세우는 일이다. 통합이 현실이 된다면 문화예술의 생태 지도는 그렇게 다시 그려져야 하며, 그 변화는 연결이라는 키워드로 시작될 것이다.

이제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는 단순한 양성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26년 2월에 서포터즈 통합플랫폼 앱을 오픈해 서포터즈들이 ‘가인-해택-참여’를 한곳에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포터즈들이 전남 방문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할인가맹점을 올 연말까지 1500개소, 2028년까지 3000 개소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다. 서포터즈의 참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참여-경험-공유’의 선순환 구조로 안착되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남 서포터즈로서의 소속감 및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리를 해나갈 것이다.

사람이 머물고, 관계가 이어지는 곳, 그 곳이 바로 진정한 지역의 힘이다.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 65만명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전남과 대한민국을 잇는 소중한 다리이자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으로 전남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소중한 자산이다.

봄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이 자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의 과실이 되는 것처럼,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가 지역과 도민을 위한 희망의 씨앗과 과실이 되어주길 바란다.

독자투고

설 명절 노린 ‘택배 스미싱’ 주의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휴대전화 문자에 배송 주소 오류로 반송 예정, 관세 미납으로 배송 보류, 수취인 확인 필요 등 나와 전혀 관계없는 문자가 들어왔을 때 이는 무조건 스미싱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혹여 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 유명 택배사나 온라인 쇼핑몰을 모방한 사이트로 연결되고, 운송장 번호 입력이나 본인 인증을 요구하는 화면이 나타난다.

해당 사이트는 로고와 색상, 화면 구성까지 실제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하게 제작돼 일반 이용자가 진위를 구분하기 어렵다.

다수에게 무작위로 문자를 발송한 뒤 소수의 피해자만 발생해도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링크 기반 스미싱 수법을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한편 신분증 사진 등은 사전에 삭제하고, 저장하지 않는 작은 습관이 피해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사설

광주전남 파급 효과 큰 공공기관 유치 절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유치전을 전개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에 이전을 원하는 핵심 유치기관 10곳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의 ‘통합특별시 우선 이전’ 기조를 근거로 인공지능·에너지·농생명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이들 기관의 유치 필요성도 설명했다.

이날 시·도지사가 공개한 10개 기관은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마사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다.

양 시·도의 최우선 유치 대상은 전국 지역 농축협을 대표하는 법인으로 이전 대상중 규모가 가장 큰 농협중앙회다.

전남이 전국 최대 농업 중심지로,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농생명 분야 핵심 기관이 자리 잡고 있어 이번엔 농협중앙회가 추가 이전할 경우 정책·금융·유통 기능이 한 데 모여 집적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에너지 분야의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전도 절실하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444GW) 전국 1위로 전국 최초로 도 전역이 분산에너지특구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열에너지와 전력 연계를 담당하는 지역 난방공사 이전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광주의 경우는 AI 중심도시 조성과 자율주행 실증기반 강화를 위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도가 공공기관 2차 유치에 공동전선을 구축한 것은 이번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 가능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출범 직후부터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며 추진하고 있는데다 광주·전남의 경우 첫 시·도 통합단체라는 장점도 있어 어느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다.

또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도 광주·전남이 하나가 돼 유치한 전력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 광주·전남은 지역 미래 먹거리에 ‘화물점점’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에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광주 ‘반도체 설계 인재’양성 기대되는 이유

광주에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기업의 인재양성소가 들어선다고 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최근 반도체 설계기업 암(Arm)과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들은 ‘GIST-Arm 스쿨’을 설립, 앞으로 5년간 총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전문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박사급인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은 오는 2학기부터, 학사, 취업준비생, 재직자 대상인 반도체아카데미는 오는 6월부터 운영키로 했다.

영국 캠브리지에 본사를 둔 ‘Arm’은 1990년에 설립된 세계 1위 반도체 설계 지적재산권(IP) 기업이다.

동وان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지 않고 아키텍처(설계 청사진 또는 작동원리)·설계 IP를 라이선스하며 용량·기기별로 로열티를 받는 ‘설계 플랫폼’ 모델로 세계 시장을 주도해 왔다. 전 세계 스마트폰의 연산과 데이터 처리를 담당하는 메인 프로세서인 AP시장 점유율이 90%가 넘을 정도라고 한다. 또 서버,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핵심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이 모기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Arm의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광주에 도입,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광주시가 추진해온 반도체 인재양성 사다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인공지능, 반도체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핵심거점 광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로 광주시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실증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과 연계해 전남대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 조선대에는 반도체 첨단패키징 전문인력 양성, GIST에는 삼성전자 계약학과 등의 교육·연구과정을 운영해 왔다. 이번 Arm 스쿨 운영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의 전 주기 사다리를 완성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곳은 설계 중심 교육을 넘어 인공지능 반도체 실증으로 확장되는 남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광주는 부산·구미를 잇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한 축으로, AI와 미래차 등 국가 첨단산업 정책의 핵심 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이 세계적 반도체 인재양성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취재수첩

나라 빛내는 올림픽 선수단 활약 계속되길

송하중

문화체육부 기자



지구촌 겨울 스포츠 대축제인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 올림픽’이 지난 7일 개막했다.

오는 23일까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선수 71명을 포함한 130명의 선수단을 파견, 금메달 3개와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정했다.

우리나라가 동계 올림픽 톱10에 진입한 건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7위(금 5·은 8·동 4)가 마지막이다. 최근 대회였던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 2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14위에 머물렀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 선수단의 출발은 좋다.

먼저 스노보드 알파인의 김상겸(37·하이원)이 한국 첫 메달을 따냈다. 그는 지난 8일 이탈리아 리비노 스노파크에서 열린 대회 남자 평행대회전 결승에서 베나민 카를(오스트리아)에게 0.19초 차로 밀려 은메달을 기록했다. 8년 만에 나온 한국 스키·스노보드 메달이

다. 앞서 이상호(넥센엔지니어)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이 종목 은메달을 획득, 사상 첫 올림픽 입상에 성공한 바 있다.

스노보드 빅에어에서는 역대 첫 메달도 나왔다. 유승은(청북고)이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 그는 지난 10일 열린 결선에서 171점을 획득, 무라세 코코모(일본·179점)와 조이 사도스키 시넛(뉴질랜드·172.25점)에 이어 3위에 올랐다.

그는 이 메달로 모든 기록을 휩쓸었다. 한국 여자 빅에어 선수로는 처음으로 올림픽 결선 무대에 올랐고, 빅에어 사상 최초의 메달을 수확했다. 한국 스노보드 프리스타일 첫 메달이자, 설상 역사상 첫 여자부 메달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빙상이 주력 종목이었다. 설상은 사실상 불모지나 다름없을 정도로 취약했다. 그러나 이번 대회 선수단의 활약으로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모든 체육인의 꿈의 무대인 올림픽은 이처럼 노력의 결과와 훈련의 결실을 맺는 대회다.

나라의 명예를 위해 굼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는 이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활약을 이어가길 바란다.

		<a href="http://www.GwangNam.co.kr">www.GwangNam.co.kr</a>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경 제 부 370-7020 산 업 부 370-7010 사 회 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문 집 부 370-7082			는 설 실 370-7200 임 월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